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주님 성탄 대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시

- 입답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복음** 루카 2,1-14
-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시

- 입답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음** 요한 1,1-18 또는 1,1-5.9-14
-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교구장 성탄 담화문 4~5면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강론·전례 8면

소공동체장 연수-거제지구



소공동체장 연수가 마산·창원지구에 이어 12월 15일 고현성당(거제지구)에서 실시되었다. 연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주제로 여인석 베드로 신부(사목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72명이 참석하였다.

제15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인회 정기총회



가톨릭문인회는 12월 11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15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담당사제인 이상록 요한 신부(홍보국장)의 집전으로 감사미사를 드리고,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수필 부문 당선 윤유경 세실리아, 동화 부문 당선 윤혜정 글라라에게 교구장 명의의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가톨릭문학 23집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출간기념과 새로운 임원진 선임이 있었다. 회장 도경희 스텔라, 부회장 유희선 가타리나, 감사 김정권 시몬, 사무국장 이준호 라파엘, 사무차장 곽광주 에스더, 그리고 편집장 조정자 이사벨라가 봉사하게 되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마산교구이사회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마산교구이사회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및 기념식이 12월 11일 완월동성당에서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역대 회장 3명, 40년 장기 활동 회원 10명, 공로 활동 회원 7명 총 20명의 빈첸시오안 교구장 주교의 상을, 공로 활동 4명이 한국이사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최봉원 신부는 “빈첸시오 400년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빈첸시오 회원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마산교구이사회는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며 젊은 빈첸시오 회원 모집 활동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하였다.



2021년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자 종강미사



교구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자 종강미사가 12월 5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최문성 마르코 신부(성소국장)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예비신학생과 여학생 예비성소자 약 46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2022년 광주가톨릭신학교에 합격한 서유찬 라파엘(고성본당) 졸업생을 격려하고 축하하였으며, 2021년 예비신학교를 마무리하였다.

나를 받아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왜 사람들은 이리도 신앙심이 다른지요?”

제가 6살쯤 되던 해에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심 끝에 대구에서 살고 있던 저의 아버지에게 시골로 들어와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에 여섯째였고,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골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버지를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의 상황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믿고 따른 요셉 성인처럼 그렇게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편한 것을 선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의 상황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나약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열정적이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늘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지만 하느님은 더 멀어진 것 같고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나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부족함과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구간처럼 웅크리고 이기적인 우리 마음 안에서도 태어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과 사건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성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하느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마음과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 안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가운데 잠시나마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현존을 느껴 보십시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주님께서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태어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요셉 성인처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성탄절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함은 아마도 우리 마음이 주님과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듯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고요한 침묵 가운데 나의 나약함을 봉헌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님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돌파하셨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을 준비했지만, 이처럼 어둡고 희망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대림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맹위 앞에 어쩔 줄 몰라 불안합니다. 마치 2700여년전 강력한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에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이사 7,9)

정치적인 꿈수와 인간의 술수에서 의지처를 찾는 백성들에게 보라 소리칩니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 없애버리시리라.”(이사 3,1)

“그런 다음 나는 꽃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3,4-5)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이사 3,9)

그러나 그날이 오면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이사 32,1)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귀한 이라 부르지 않고 간교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한 이라 말하지 않으리라.”(이사 32,5)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리라.”(이사 32,15-16)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 7,14)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지가 없이 엎드려 숨만 쉬어 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뵈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평화”

2021년 성탄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일 립



기억할 선종 사제

현기호(시몬) 신부
1985년 12월 30일

교구/본당

수품자피정

일시: 12월 28일(화)~22년 1월 3일(월)
장소: 성혈 영성의 집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월 30일(목)~22년 1월 12일(수)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월 30일(목)~22년 1월 3일(월)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8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모집: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가군] 학생부교과 선발
(고교 졸업/ 검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학생복지혜택
문의: 053·850·2580

성바오로딸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일시: 22년 1월 7일(금) 15:00~9일(주일) 15:00
장소: 성바오로딸수도회 여주사도의모후집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33세 이하 미혼 여성
피정비: 3만 원
문의: 김 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내용: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줄인 구세사-1,2편),
김영선 수녀(지혜여정: 역사서),
김효준 신부(바이블가이드: 성경입문가이드),
박형준 신부(지혜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가능, 수시접수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의방선교회	2022년 1월 2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주식회사 바른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니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업 주식회사 바른(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010-5055-0076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령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	--	--	---



일 립

문의: 010·3092·1108, 02·945·3300,

www.catholicon.co.kr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1월 개강)

▶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죄와 구원에 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임숙희 박사)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유성모 신부)
·갈 융의 심리유희론과 MBTI: 영성적 접근(김정택 신부)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잠언-집회서(주원준 박사)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22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7.5%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진교본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호일(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태길(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강돌분(아가다)

총무: 김미자(막시마)

전례분과위원장: 홍영희(리디아)

부위원장: 박윤관(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주명희(스콜라스티카)

부위원장: 한미순(노엘)

구역분과위원장: 홍명자(희순루시아)

가정사목분과위원장: 강분선(카타리나)

교육분과위원장: 진향숙(마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배선희(에스테르)

부위원장: 천지혜(오틀리아)

시설·홍보분과위원장: 배민성(알베르토)

부위원장: 유호경(도미니코)

선교분과위원장: 최장명(아네스)

성가대장: 이금주(글라디스)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2022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4:00 |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사제품



계강준 요한

첫미사 칠원성당

2022년 1월 5일(수) 19:30



김현 안드레아

첫미사 반송성당

2022년 1월 7일(금) 19:30



임태근 모세

첫미사 호계성당

2022년 1월 6일(목) 19:30



정병진 요셉

첫미사 함안성당

2022년 1월 7일(금) 19:30



신승혁 요한

첫미사 장평성당

2022년 1월 5일(수) 19:30



남하늘 엘리지오

첫미사 대방동성당

2022년 1월 6일(목) 19:30

부제품



이창범 라자로

구암동본당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문산본당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옥봉동본당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 참석을 제한합니다.

교우분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 천주교마산교구)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공동체 - 성가정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성가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자인 경우를 두고 성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성가정이라고 여기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자인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성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리지널 성가정인 예수님의 가정에는 하느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여겨왔던 분들은 과연 우리 가정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성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세례 여부와 관계없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있다면, 그 역시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한 15,17),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1요한 4,12) 때문에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하느님을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의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레위 17,11), 주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행위인 성체성사 안에서도 성가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해서 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당 공동체도 하나의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은 피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본당 공동체도 같은 예수님의 피를 공유하면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가족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참가족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모시면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극복하면서,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모두 세례받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가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성민 미카엘 신부 | 양덕동본당 보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또는 1사무 1,20-22,24-28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또는 1요한 3,1-2,21-24
복 음	루카 2,41-52